

한국경제학회, 국민경제자문회의
정책세미나

한국경제의 현안과 과제

2014. 2. 13

김 정 식
(연세대 경제학부)

I. 한국경제여건의 변화와 제도개선

1. 한국 경제여건의 변화

● 대내적 변화 :

- 저성장, 저물가 국면 지속 : 낮아지는 잠재성장률
- 산업구조 변화 :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
- 고령화 : 복지수요의 증가와 노후의 불안

● 대외적 변화 :

- 미국의 출구전략과 아베노믹스
- 자본자유화 :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효율성 저하 및 갑작스러운 자본유출(sudden stop)에 의해 외환위기 위험에 노출
- 중국의 등장 : 위안화 국제화 및 주력산업의 이전 : 실업의 증가
- 역내 무역자유화 : FTA 혹은 TPP로 무역시장의 변화

2. 변화에 부응한 제도개선 및 정책변화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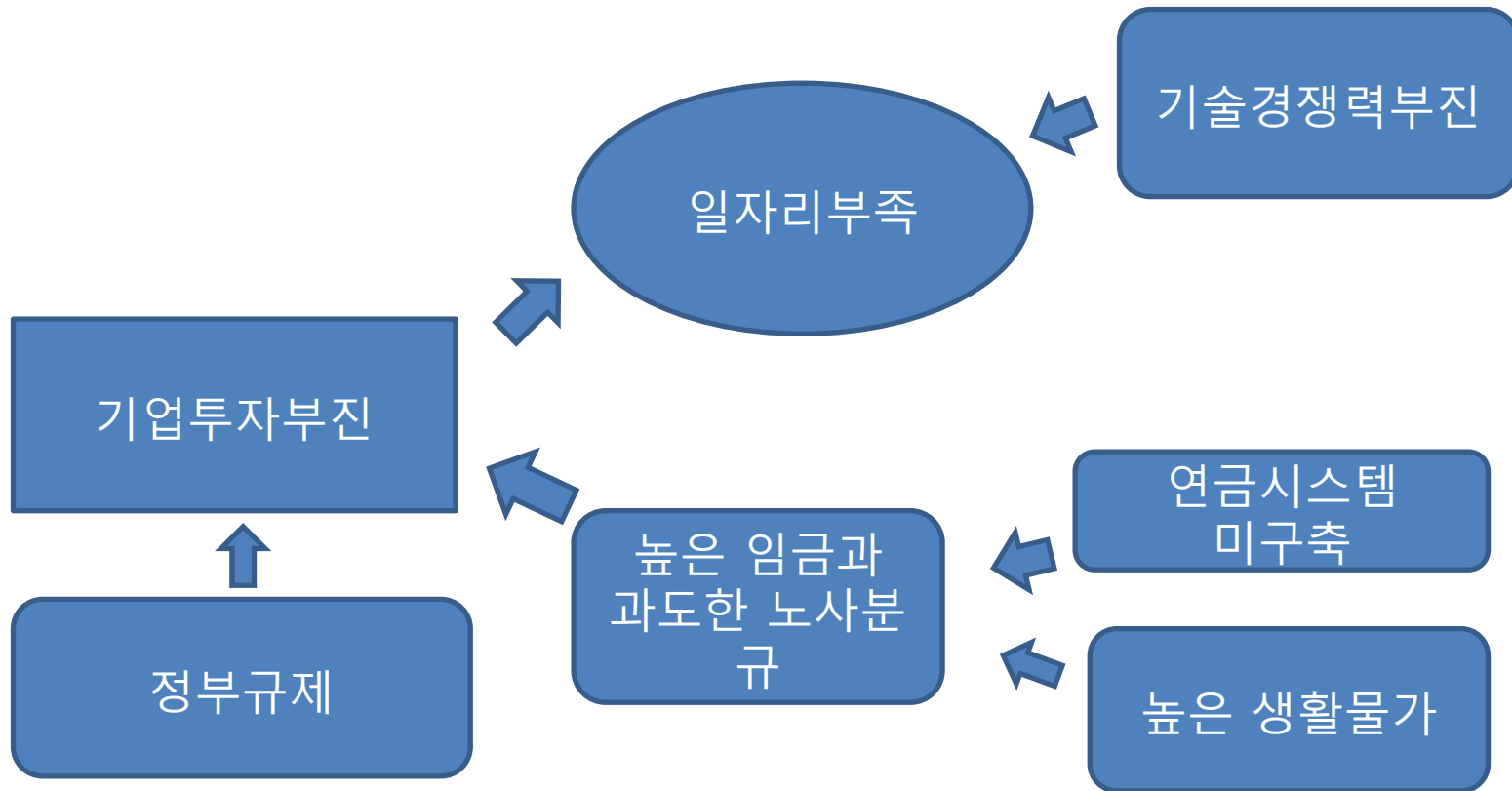
-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저성장 기조의 정착으로 재정적자, 국가부채 문제 발생 : 경제위기 발생
-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 (Reshaping) 혹은 정상화와 새로운 성장전략 필요
- 이익집단 때문에 제도개선 어려움
- 단계적인 추진 필요 : 3-5개년 계획

II. 한국경제의 현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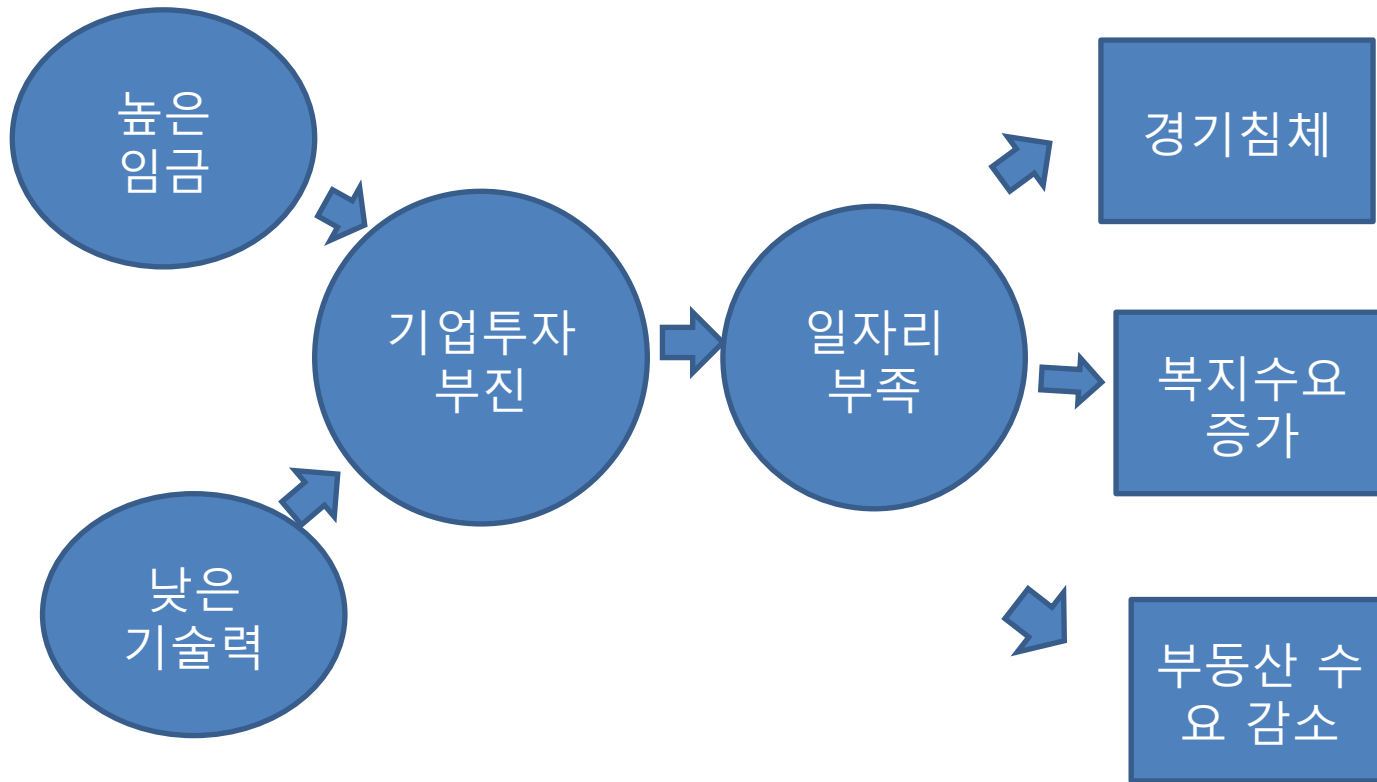
1. 내수 부진과 일자리 부족

- 기업투자를 늘리기 위해 1)금리인하 2)법인세 인하 3) 정부규제완화 4)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 및 경제민주화 추진
- 기업설비투자 지속적으로 감소추세
- 청년실업에 40-50대 조기퇴직까지
- 일자리의 88%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약화
- 신 성장동력 부족
- 생산성을 상회하는 높은 임금과 과격한 노사분쟁이 주된 원인

일자리 부족의 원인



일자리 부족의 영향



높은 생활물가

- 소비자 물가는 안정적
- 식탁물가등 생활물가가 높아 임금상승의 원인임

2. 장기적 저성장 기조 정착

- 기업투자 부진과 출산율 저하(1.18명)로 잠재성장률은 현재 3% 후반대에서 2020년대에는 2% 후반대로 하락 전망
- 제품라이프 사이클 가설에 의해 조선, 철강, 자동차, 전자등 주력산업의 점차적 중국이전 전망

서비스 및 금융산업의 낮은 경쟁력

- 금융산업은 국부창출 산업
- 경상수지 흑자로 창출된 국부가 외국인 금융투자수익증가로 유출되어 국부창출이 되지 않음
-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
- 금융인력양성을 등한시 함 (장기적인 경영 전략 부재)

한국의 기간별 평균성장률

연도	경제성장률(%)
1960-1969	8.46
1970-1979	10.16
1980-1989	8.64
1990-1999	6.68
2000-2009	4.43
2010-2012	3.96
2012	2.00
2013	2.90(추정치)

자료 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이

	잠재성장률
2010-2019	3.6% 내외
2020-2029	2.5% 내외
2030-2039	1.5% 내외

자료 : KDI, 경제인문사회 연구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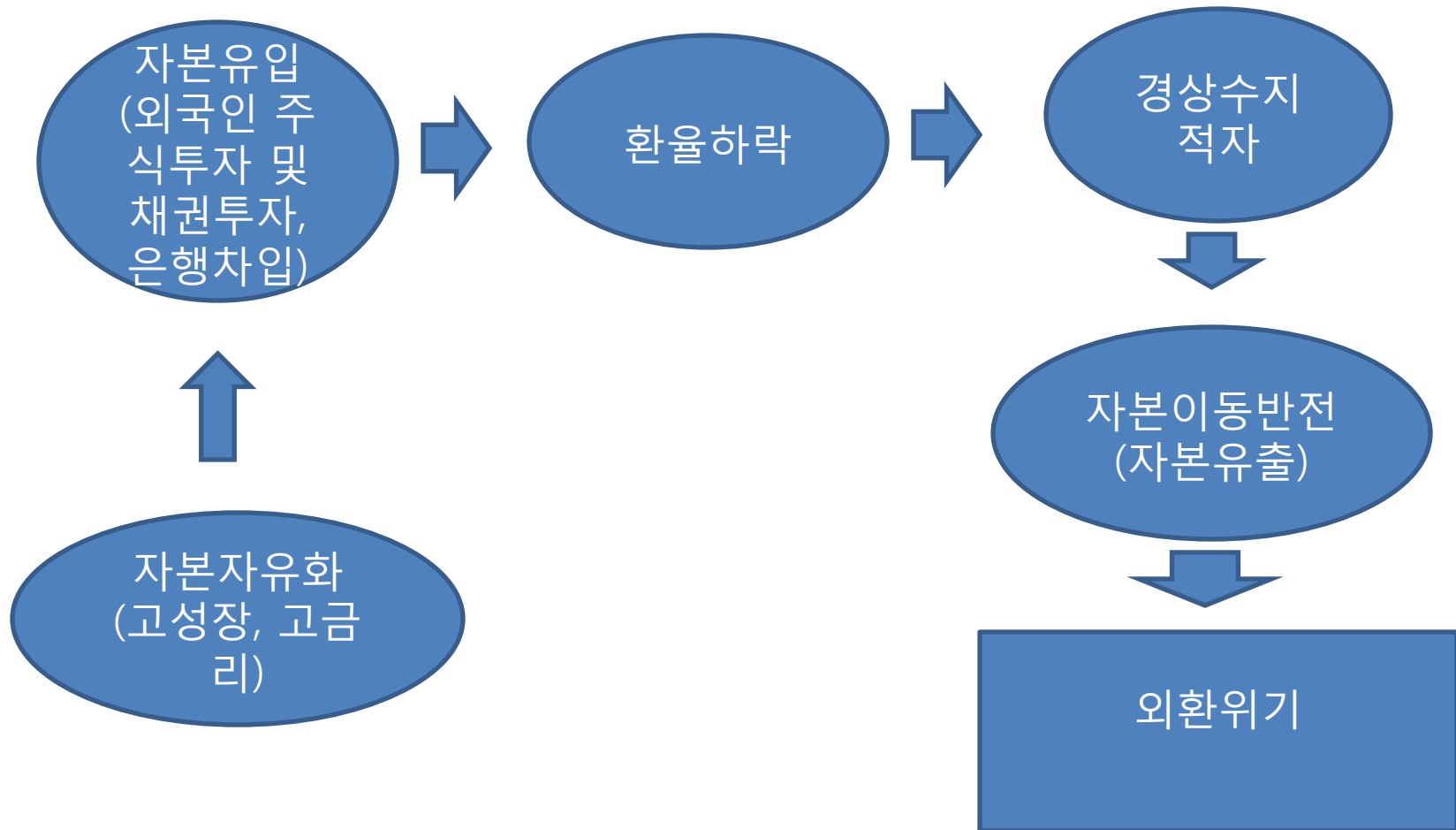
3.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증가

- 일자리 부족으로 생계형 가계부채 증가
-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 155%로 OECD 평균인 135%를 상회(세계 9위)
- 국가부채는 정부부채의 경우 GDP 대비 35%로 양호하나 공기업부채 포함시 70%를 상회하여 기준치 60%보다 높아짐
- 공기업부채 관리 필요
- 일자리 부족시 복지수요 증가로 국가부채 급속히 증가전망

4. 자본자유화와 구조적 외환위기

- 선진국보다 금리와 성장률이 높아 과도한 자본유입(surge) 발생 → 환율하락
→ 경상수지 악화 → 갑작스러운 자본유출로 외환위기 발생
- 1) 자본자유화 2) 소규모 개방경제 3) 높은 무역의존도 4) 비교환성 통화를 가진 국가에서 변동환율제도 선택시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효율성이 저하됨

자본자유화와 구조적 외환위기



III. 한국경제의 과제

1. 내수활성화 방안

(1) 기업투자 활성화 : 연금체제 구축해서 노사분규 줄여야

- 연금체제 구축 집단 : 공무원, 교사, 군인
- 국민연금 : 최고 월 120만원
- 고령화로 연금수요 증가 : 국가부채 증가
및 임금인상과 과도한 노사분규 발생
- 해결책 1 : 민간연금 체제 구축 : 정부지원
필요
- 해결책 2 : 정년 연장 및 기업투자 활성화
로 일자리 창출

(2) 초임과 피크타임 임금격차 줄여야

- 대만과 홍콩 및 일본에 비해 초임 높음
- 초임과 피크타임 임금 격차가 선진국보다 높음
- 조기퇴직 방지 혹은 퇴직연령 늦출 수 있음
- 기업투자가 확대됨
- 연금 및 복지수요 줄일 수 있음

(3) 직업훈련 강화와 정부규제 완화

- 전직이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요가 많은 업종으로 전직을 위해 직업훈련 강화 필요
- 직업교육 위주로 현재의 대학 교육체제 변화 필요
-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과도한 기업투자 정부규제 완화 필요

(4) 통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

- 저성장, 저물가에 적합한 통화정책 필요 :
미래 통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서 금리정책의 불확실성 해소해서 기업투자 유도
 - 미국 실업률 6.5%까지, 일본 물가상승률 2%까지 양적완화정책 실시
- 전략적 통화정책 : 미국과 일본등의 통화정책을 고려해서 정책수립 필요
- 환율정책과 공조하는 통화정책

(5) 생활물가 및 주택가격 안정

- 식탁물가 안정을 위해 유통구조 점진적 개선 :
현재 농산물 유통은 기획재정부, 산업부, 농수산부로 분산됨 : 총괄기능을 하는 유통위원회 설치 필요
-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광역교통망 구축해야 :
급행 지하철 체제구축 및 부심과 도심사이에 지하철 건설 : 주택과 교통망은 결합재
- 주택비분양 해소시킬 수 있으며 주택경기 부양 및 전세가격 안정시킬 수 있음

2. 신성장동력 확보방안

(1) 과학기술인력양성과 중소기업 기술력 지원

- 제조업의 매몰비용이 높아 직업의 안정성이 높음
- 서비스업과 더불어 제조업 중요성 간과해서는 안됨
-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지원으로 경쟁력 향상
- 과학기술분야에 우수한 인재가 가도록 유인제공 필요 : 이공계대학 장학금 확대등
- 주력산업의 중국이전을 늦출 수 있음

(2) 미래성장동력 육성계획

-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산업정책의 중요성 재부각
-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 계획 수립필요
- 한국경제의 밝은 미래 전망으로 기업투자가 확대될 수 있음
- 기업투자는 현재여건은 물론 미래전망에 의존함

(3) 서비스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

- 국부창출 : 내수, 수출, 금융투자
- 자본자유화로 금융부문에서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금융산업경쟁력 강화필요
- 저성장으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확대추세 : 투자수익을 내기위해 필요
- 금융인재 양성해야
- 건전도 평가시 BIS 비율외에 (교육훈련비/경상비) 고려 필요

3. 국가부채 관리방안

(1) 국가부채 규모

- 정부부채 : GDP의 35% 양호
- 공기업부채를 포함하면 100% 까지 상승가능 : 경제위기 초래 (60% 이상이면 위험)
- IMF 국제기준 : 공기업부채 포함
- 공기업부채 = 방만경영부채 + 투자성부채
- 혼재되어 구분이 어려움, 투자성부채규모가 커서 경영부실부채는 간과함

(2) 공기업 부채의 위험성

- 공기업 구조조정 → 공기업 민영화 → 공기업 선진화 → 공기업 정상화
- 공기업 선진화 : 해외투자에 의한 수익창출
- 투자성 부채와 부실이 크게 늘어나게 되어 있음
- 자원관련 공기업의 주업무 : 자원탐사, 자원비축 : 자주개발을 제고를 위해 자원생산에 참여 : 투자성 부채 급격히 증가함
- 투자부실로 부채증가
- 자주개발율 = (해외 자원생산량 / 자원수입량)

(3) 공기업부채 관리방안

- 경영부실 :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경우 예산감축 및 인원감축 필요
- 경영평가 강화
- 투자부실 : 투자실명제, 책임제 도입 (도적적 해이 해소)
- 공기업의 역할 재정립 : 민간기업이 하지 않는 업무 한정 (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님)
- 수익창출을 위한 투자사업 정리 : 투자지분 정리 및 매각

4. 미국의 출구전략과 금융불안 해소 방안

(1) 미국의 출구전략

- 월 850억달러 채권매입을 1월부터 월 100억달러씩 축소
- 미국 경제성장률 작년 하반기 3.4%이며 올해 2%중반 전망
- 실업률 6.6%로 6.5%에 근접, 물가는 1.5%수준으로 2.5%에 미달
- 출구전략 가속화시 세계경제 금융불안 확산가능성
- 동유럽 및 서유럽국가의 성장률 1%미만이며 경상수지 적자국가 많아 취약
- 자원가격 하락으로 자원수출국 경제취약 : 금융불안 확산가능성 높음
- 한국의 대 신흥시장국 수출비중 40% 이상
- 실물경기 침체시 금융부실 증가로 금융위기 우려됨
- 경상수지 흑자폭유지 + 내수경기 부양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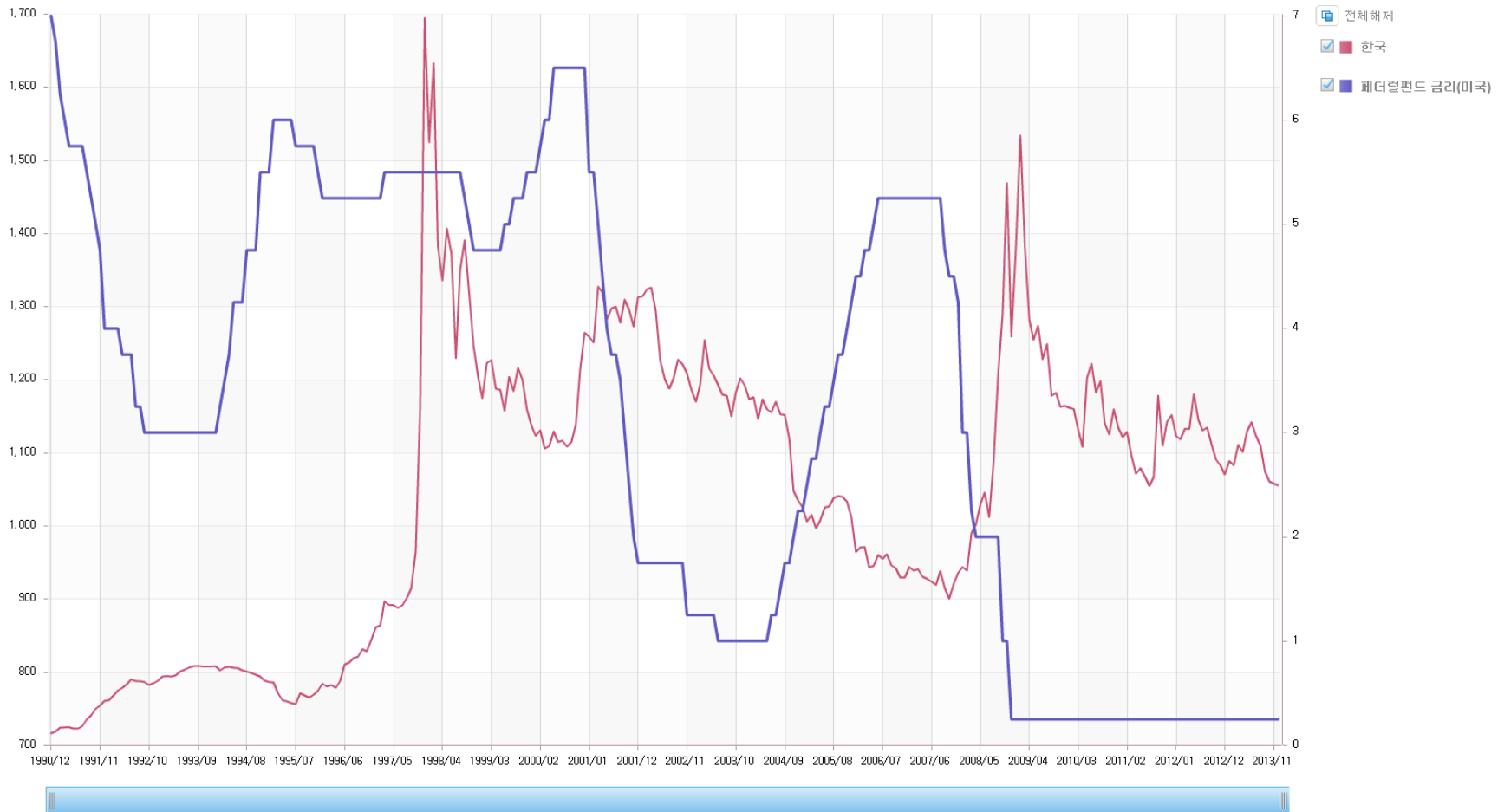
(2) 자본유출로 인한 외환위기 대응방안

- 비교환성 통화를 가진 국가의 특수성 인식 필요 (선진국과 차별화 중요)
- 과도한 자본유입 규제 필요
- 김정식(2013) : 과도한 자본유입이 갑작스러운 자본유출의 원인임
- 외환보유고 확충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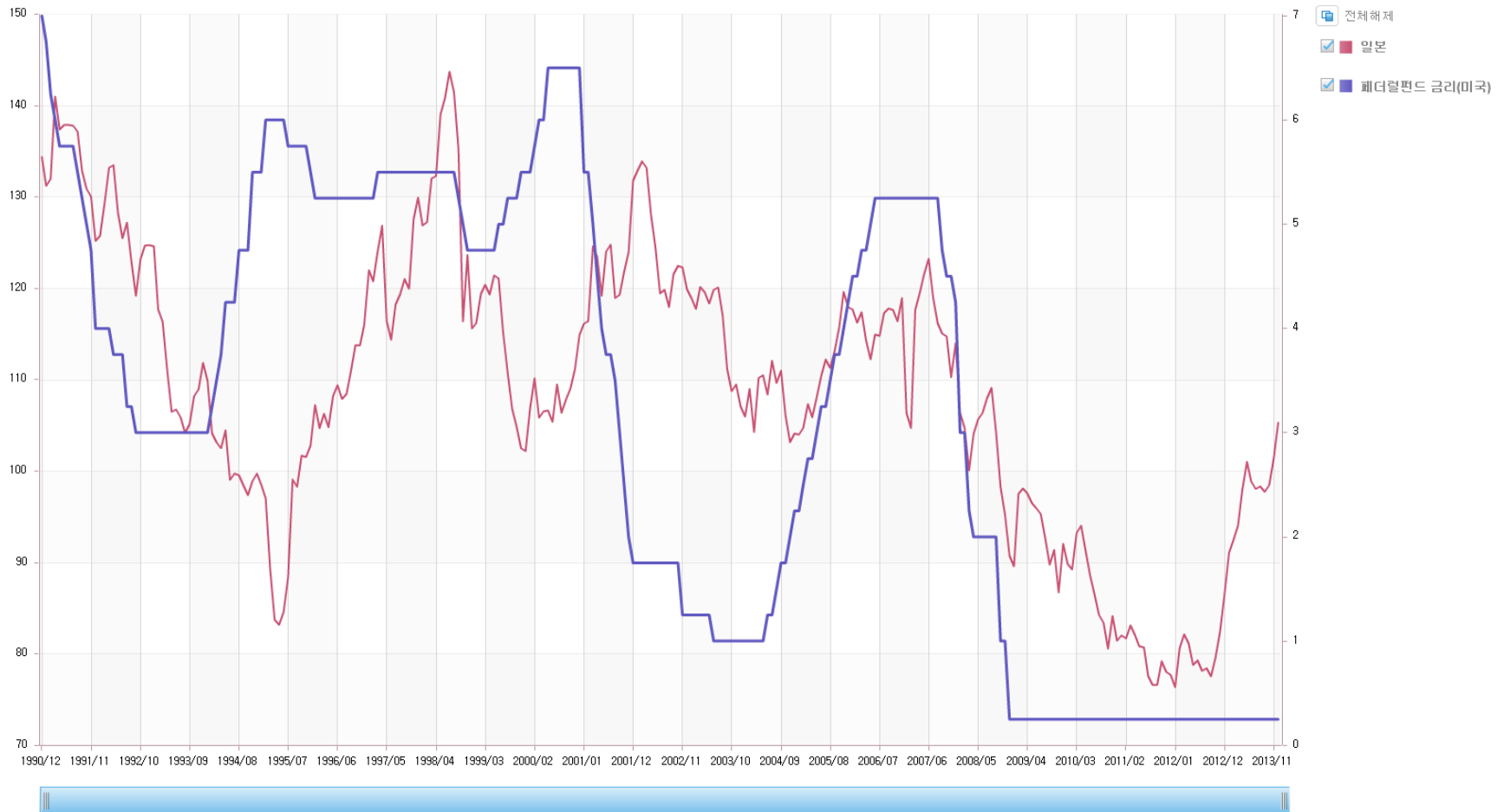
(3)일본 아베노믹스에 대비한 적정환율 유지 필요

-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대외건전도+ 대내건전도 유지 필요 : 대외건전도 유지를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폭 유지 필요(GDP 5%내외) : 수출을 위한 적정환율 유지해야
- 아베노믹스로 인한 일본 엔화의 가치변동을 고려한 적정환율 유지 필요 (일본과의 수출경쟁관계를 고려해야)
- 일본 엔화가 과도하게 평가절하될 경우 한국수출이 감소하면서 경상수지 악화로 외환위기 초래 (1997년과 2008년)
- 미국 금리인상 시기(1994.1-1995.6), (1999.1-2000.12), (2004.6-2007.6) 기간 중 일본엔화는 한국원화보다 더 큰 폭으로 평가절하 함 : 1997년과 2008년 한국 외환위기 경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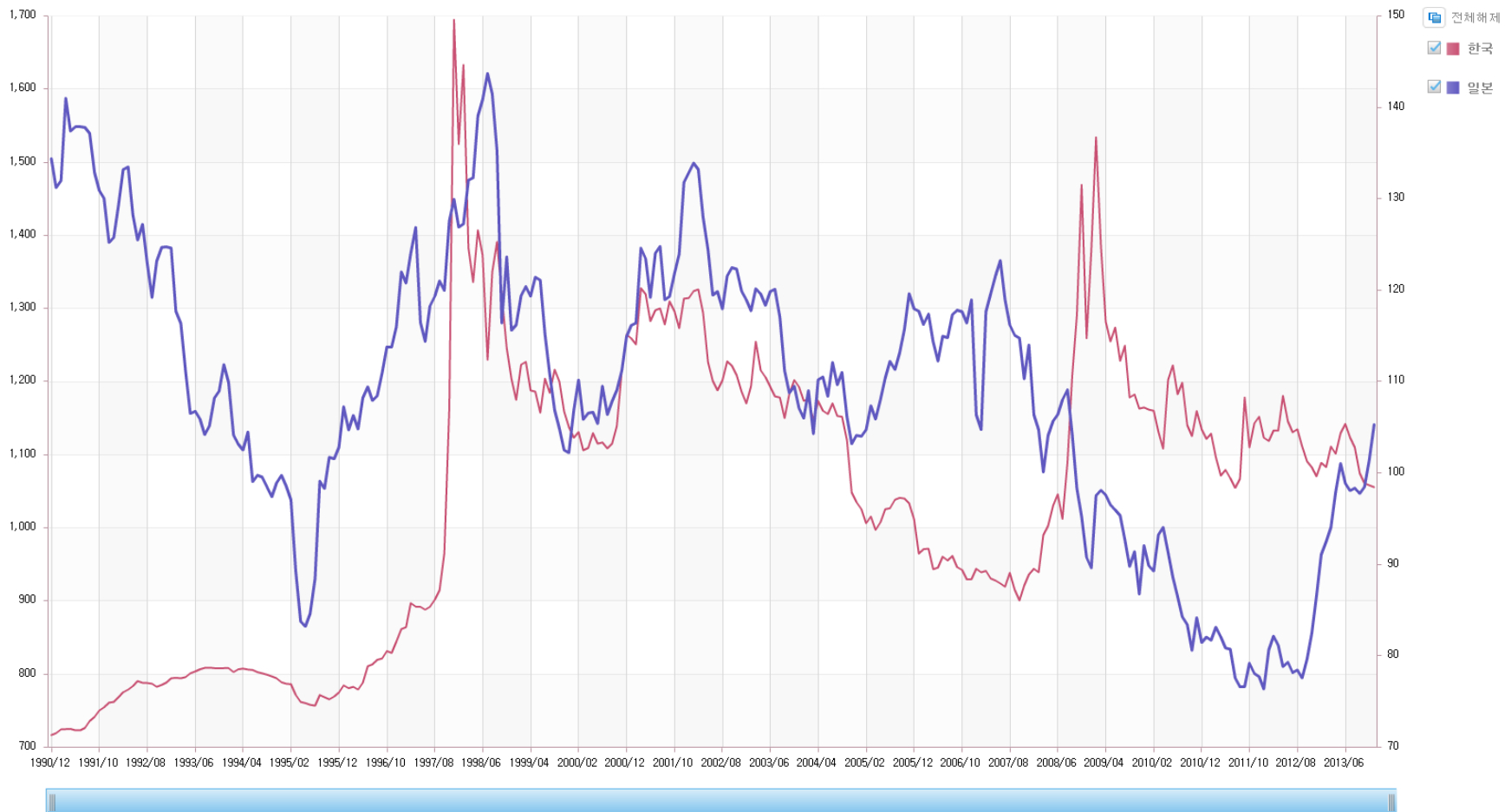
미국의 금리인상과 원/달러 환율추이



미국의 금리인상과 엔/달러 환율추이



원/달러 및 엔/달러 환율추이



(4) 금리정책과 환율정책의 조합

- **저금리 + 저환율정책** = 물가안정 + 강력한 내수부양 + 경상수지악화로 외환위기(1993년-1996년 **김영삼정부** 실시)
- **저금리 + 고환율정책** = 물가상승 + 완만한 내수부양 + 수출증가 + 경상수지 흑자(**이명박정부** 추진 : 원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실패 : 원유가가 높은 경우 고물가로 인해 사용할 수 없음, 그러나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경우 실시 가능함)
- **고금리 + 고환율정책** = 물가 중립적 + 내수침체(구조조정) + 수출증대 + 강력한 경상수지 흑자(1998년 외환위기 이후 IMF 권고로 **김대중정부** 실시)
- **고금리 + 저환율정책** = 물가안정 + 내수침체 + 수출감소 및 수입증가 + 경상수지 악화로 외환위기 가능성 높음(한국은행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, **김영삼정부**가 외환위기 직전 사용하여 외환위기 초래됨)
- 현재는 원유 및 국제원자재 가격과 국내물가가 안정되어 있고 엔/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상황이므로 (**저금리 + 적정(고)환율정책**) 사용이 바람직함

IV. 정책제언

정책제언(요약)

- 거시경제여건 : 미국의 출구전략+아베노믹스+신흥시장국 금융불안+내수침체(저성장)+물가안정
- 정책 목표 : 경상수지 흑자유지(자본유출 막고)+ 내수부양(기업부실 막기 위해) 필요(저성장으로 물가는 안정되고 있음)
- 정책수단
 - 과도한 자본유입규제 (적정환율 유지)
 - 저금리 + 적정(고)환율정책(내수부양과 경상수지 흑자유지)
 - 내수확대와 일자리 창출
 -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규제 완화(내수확대)
 - 금융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
 - 직업훈련 강화
 - 임금인상 억제 및 연금체제 구축으로 고용증대 추진
 - 창조경제 구체화
 - 기술혁신으로 기업투자 유도(창조경제)
 - 미래성장동력 확보
 - 공기업부채 감소 추진 : 공기업 정상화
 - 예산 및 인원 동결
 - 투자실명제 및 책임제
 - 경영평가 강화

감사합니다.

kimjs@yonsei.ac.kr